

바른정당도 보이콧...추경 다시 스톱

김상곤 부총리 임명 반발 국민의당 공무원 증원 반대 11일 본회의 처리 미지수

여야의 인사청문장 정국 대치로 한 달가량 계류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4일 상임위별 심사 착수에 들어가면서 힘겹게 첫발을 뗐지만 곧바로 난관에 부딪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역량을 결집에 나섰으나, 바른정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반발, 안보 관련 상임위를 제외한 국회 일정 불참을 선언하면서다. 이에 따라 추경안을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민주당 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고용노동부의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한 뒤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7월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환노위는 물론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방위도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추경 심사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회의에 불참했지만 '추경-인사청문' 분리를 약속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참석해 추경 심사에 나섰었다.

민주당은 우선 한국당이 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를 뺀 8곳의 상임위를 중심으로 추경 심사에 들어가 오는 11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추경 심사 착수에 동의한 국민의당이 공무원 증원 등이 장기 재정에 부담된다는 세부 항목에는 반대하고 있는데, 애초 추경 심사에 나섰던 바른정당이 김상곤 부총리 임명 강행에 반발, 국회 일정 불참을 전격 선언했기 때문이다.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자(왼쪽부터), 조국 민정수석, 전병헌 정무수석이 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교육, 환경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는 연구논문 표절 의혹이 있고 이념편향성이 강해 교육 중립을 지킬 수 없는 후보자"라며 "김 후보자를 임명하면 다른 국회 의사일정에 참가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봐서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라는 특수 상황을 감안해 국방, 외통, 정보위는 즉시 소집해 다루기로 하고 그 외 상임위는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임명 강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야권이 추경에 선포 동의하지 않자 '이번 추경은 일자리는 물론 민생을 위한 추경'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

며 설득에 나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에는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2000억원 포함됐다"며 "제1야당인 한국당은 치매 국가책임제 예산에 적극 협조해서 효도 정당으로 거듭나 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을 추경이 아닌 본예산 예비비를 활용해 추진해야 한다는 중재안과 함께 가뭄대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등의 대안 추경을 내놨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의 추경안에서 3조원가량을 줄이고 5000여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대안 추경안 방향'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LED 교체사업 예산(2003억원) ▲펀드 조성(1조4000억원) 및 기금 출연(1000억원) ▲연구개발(R&D) 예산(202억원) 등도 감액 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의당의 감액 요구 규모는 3조 원가량이다.

국민의당은 대신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1250억원) ▲조선업 구조조정 밀집지역 지원(100억원) ▲가뭄·조류인플루엔자(AI)·세월호 유류 피해지역 지원(1051억원)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677억원) ▲순주돌봄 양육수당(700억원) ▲모성보호 일반회계 전출금(1033억원) 등의 사업을 증액키로 했다.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증액 규모는 5452억원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위장전입·안보관 총공세

정현백 여성장관·박정화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국회는 4일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유영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야당 위원들은 유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 투기 목적의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유 후보자는 실제 경작 중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여당 위원들은 흠집내기 식 신상 탈기라고 비판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유 후보자 자녀에 대한 특혜 취업 의혹도 제기했다. 야당은 유 후보자 자녀 두 명이 모두 유 후보자가 몸담았던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했다며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추궁했고, 유 후보자는 두 자녀 모두 자신의 퇴직 후 취업했으며 압력을 행사한 사실 또한 없다고 반박했다.

정현백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당은 정책 질의에 집중했지만 야당은 전안함 침몰 관련 후보자의 과거 발언

을 꺼내들며 안보관을 문제삼았다.

정 후보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는 기본적으로 재협상 사안이라고 밝혔다. 과거 시민단체에 몸담던 시절 정부가 발표한 천안함 폭침설에 의혹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는 야당 청문위원들에게는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다. 국민의 의무를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이었다"는 설명을 내놨다.

성차별적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타현민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우려할 점이 있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했다.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전관 예우 발언이 논란이 됐다. 전 관예우에 대한 소신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이에 대해 여야 위원들은 박 후보자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병헌 靑 정무수석 내일 호남 방문

군공항 이전·한전공대 설립 등 대선 공약 여론 청취

전병헌(59) 청와대 정무수석이 6일 광주와 전남을 방문, 지역 현안 및 대선 공약과 관련된 지역 여론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달 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후속 조치로, 17개 시·도 중에서는 첫 방문이다.

전 수석은 오후 2시 전남도청, 4시30분 광주시청을 잇달아 방문해 30~40분씩 시청과 도청 현안, 건의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 윤창현 시장과 김갑섭 도지사 권한대행 등을 만나 20~30분간 면담을 할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서는 지역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군(軍) 공항 이전, 한전공대 설립, 친환경차 매가 육성과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국립심혈관센터 유치,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문 대통령이 밝힌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제'에 대한 의미와 로드맵 등도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 수석의 이번 방문은 청와대 인사 중에서는 지난달 15일 장하성 정책실장, 30일 하승찬 사회혁신수석에 이어 3번째다.

전 수석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17~19대 국회의원(3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지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근혜표' 5개 위원회 폐지

국민통합위원회와 문화융성위원회 등 박근혜 정부 때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설치했던 5개 위원회가 폐지됐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통합위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등 5개 대통령령 폐지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통합위원회·청년위원회·문화융성위원회·통일준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정부3.0 추진위원회가 모두 폐지됐다.

이 같은 조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통상 새 정부가 출범하면 전 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는 일괄 정비돼 왔다.

/박지경기자 jkpark@

'캐스팅보트' 회복 나선 국민의당

추경안 대안 제시 '존재감'...전당대회로 당 정상화 모색

'문재인 대통령 아들 취임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이 당원 이슈미세의 단독 범행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국민의당이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 등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원내 캐스팅보트로서의 입지 회복에 나섰다.

전날 진상조사단이 이번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 만큼, 앞으로는 원내 사안에 집중하면서 제3당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찾아간다는 방침이다.

전날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면서

도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며 정부·여당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날카로운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중재자' 역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부적격 3중 세트'로 꼽히는 국무위원 후보자들 중 비교적 신상 논란이 적고 혁신성이 강한 김 후보자 임명 절차에 협조하면서 남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조대연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의 명분을 확보한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문방위원장인 유성업 의원은 4일 B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문결과 매듭을 지어주지 않고 정치공방만 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한다. 그 점만 봐도 국민의당이 발전적인 모습으로 살아나야만 국가적 현안들이 가다가 잡히고 해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상임위별 추경 심사에도 전향적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이며, 더 나아가 정부 추경안을 보완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8월27일 전대를 예정대로 치를 수 있도록 전대준비위원회도 조만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진상조사 결과 발표로도 제보 조

작 파문이 아직 가라앉지 않은 점은 여전히 부담이다. 검찰 수사 결과 지도부 연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당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김관영 의원은 이날 CBS·P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수사가 저희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강제 수사력을 가진 검찰이 확보하는 증거가 저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이 숨기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수송용 의원은 이날 광주 국회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당의 진상조사 결과와 검찰 수사결과가 같은 방향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국면에서 국민의당에게는 반성과 함께 인내하고 미래를 위해 혁신하는 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접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기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천3백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접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65억 근린시설 스포츠타운 최적합
- ★ [토지] 광산구 송정역(KTX) 인근대로변 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관광호텔주변 카페거리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서구 풍암동 녹지지역 입아26,139㎡ 매매 평당7만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10억 조정가능 공장, 물류창고, 주택 적합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62-714-2254